“목포 전역에 건강한 나눔 문화 확산되길”

목포사회복지協 ‘함께 나눔가게’ 호응
제과·미용·방역 등 소상공인 재능기부
자원봉사센터 연계 일상 속 나눔 실천

목포시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해 2월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촘촘한 복지 공동체를 구축하는 ‘우리동네 함께하는 나눔가게’ 사업을 추진. 떡·분식·제과 등 ‘나눔맛집’부터 미용실·방역업체 등 ‘나눔멋집’ 다양한 업종이 참여해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목포시사회복지협의회 제공〉

“더 많은 소상공인이 동참해 목포 전역에 건강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네 소상공인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소외계층을 돕는 아름다운 나눔 행보가 목포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3일 목포시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지역 소상공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촘촘한 복지 공동체를 구축하는 ‘우리동네 함께하는 나눔가게’ 사업이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월 1회 3개월 이상 물품이나 서비스를 기부하면 협의회가 이를 취약계층과 연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떡·분식·제과 등 ‘나눔맛집’부터 미용실·방역업체 등 ‘나눔멋집’까지 다양한 업종이 참여해 생활 밀착형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기부업체에는 영수증이 발급돼 부담 없는 사회공헌을 이끈다.

동네 가게들의 따뜻한 마음은 이미 지역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지난달 ‘시루랑절구랑’이 삼학경로당 등 3곳에 떡 9박스(18만원 상당)를, ‘태산 이지비지 베이커리 석현점’이 주민 11명에게 10만원 상당의 빵을 후원했다.

또 목포아동원 원생 7명에게 7만원 상당의 따뜻한 미용 재능 기부가 이어졌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해에도 200만원 상당의 떡과 800만원 상당의 빵, 미용 봉사 등 총 1천만원이 넘는 릴레이 나눔을 펼치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수혜를 입은 한 주민은 “가까운 동네 가게에서 직접 챙겨주는 지원이라 마음이 더욱 따뜻해진다”고 미소 지었고, 참여 상인 역시 “작은 나눔이지만 우리 이웃의 팍팍한 일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보람을 느낀다”고 화답했다.

협의회는 이 밖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인 ‘좋은이웃들’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로 지정된 것을 발판 삼아 나눔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문화로 뿌리내리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목포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나눔가게는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웃의 손을 맞잡고 함께 짜 내려가는 아름다운 복지 안전망”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동네 가게들이 동참해 목포 전역에 건강하고 따뜻한 나눔의 홀씨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5·18기념재단-대만 2·28기념관 ‘인권 협력’ 맞손

5·18기념재단은 “최근 대만 타이베이 2·28기념관과 인권 교육·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 5·18과 대만 2·28을 매개로 국가폭력에 대한 대응과 연구의 국제 공조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2·28 사건은 1947년 대만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국민당 정부가 민간인을 대규모로 탄압한 사건이다.

재단은 협약을 통해 타이베이 2·28기념관과 인재 교류, 정보·출판물 교환, 인권 전시 공동기획 등에 합의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과 방문을 통해 5·18과 2·28이라는 양국 민주화 역사가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로 승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전남교육 꿈실현재단-전남시군체육회장단協 협약

(재)전남교육 꿈실현재단과 전남시·군체육회장단협의회가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3일 전남교육 꿈실현재단에 따르면 최근 영암종합운동장 회의실에서 김대중 이사장과 이상대 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시·군 우수 체육 인재 발굴·지원 ▲전남 체육 인재 ‘꿈 실현금’ 지원 기부금 기탁 등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협약식에서는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해 22개 시·군체육회가 각 100만원씩, 총 2천200만원의 기부약정서를 재단 측에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재단은 시·군 체육회의 기부금에 재단 예산 2천200만원을 1대1로 매칭해 총 4천400만원 규모의 ‘꿈 실현금’ 재원을 조성한다.

김대중 이사장은 “전남의 우수한 체육 인재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글로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군 체육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대 협의회장은 “재단과 교육청의 든든한 지원에 발맞춰 시·군 체육회도 전남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해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선옥 기자

최민철 전남소방본부장, 산불 대비 구례 현장 점검

구례소방서는 “최근 최민철(사진 왼쪽서 두번째) 전남소방본부장이 구례군 산동면 일원의 산림 인접 마을을 찾아 비상소화장치함 관리 상태와 가동 여부를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최 본부장은 건조 특보 발효 시 불씨가 번지기 전 마을 주변을 적셔 연소 고리를 원천 차단하는 예비주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실제 산불이 덮치면 무리한 자체 진압보다는 신속한 대피와 119 신고가 최우선이라는 행동 요령을 주민들에게 안내할 것을 일선 대원들에게 주문했다.

최민철 본부장은 “산림과 마을이 띠를 두른 듯 이어진 구례의 지리적 특성상 선제적 예비주수는 도민의 땀방울이 서린 보금자리를 지켜낼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패”라며 “매서운 봄바람 앞에서도 단 한건의 대형 화재가 마을로 번지지 않도록 촘촘하고 빈틈없는 현장 밀착형 화재 방어망을 짜내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세중 기자

담양군 ‘청소년 진로·안전 통합체험’ 성료

담양군은 “최근 담비청소년문화의집과 담빛꿈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광주북부 청소년경찰학교와 손잡고 관내 청소년 21명을 대상으로 ‘진로·안전 통합체험’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날로 교묘해지는 최신 범죄 유형과 위기 대처법을 익히는 안전망 강화 중심으로 이뤄졌다.

또한 참가자들은 지문 채취 등 과학수사(CSI) 기법과 모의 사격을 직접 해보며 실전 같은 경찰 업무에 호응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시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다수의 청소년은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응답했으며, 한 참가자는 “경찰관의 업무를 직접 체험해 보며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광주대 RISE사업단, 보건의료기관 현장 실무교육

광주대학교 RISE사업단은 “최근 보건행정학과 재학생들의 전공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목포 지역 보건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현장 실무교육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보건행정학과 재학생과 교수 17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목포시의료원에서 의료기관의 조직 구조와 행정 운영 체계, 직무별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제 보건의료 행정 업무 흐름을 체험하며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 전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보건행정 실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 문제 해결 사례를 공유하며 공공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분야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선식 RISE사업단장은 “학생들이 보건의료 행정 현장을 경험하며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적응력과 직업 윤리 의식을 함께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조선대, 노후 기숙사 리모델링 ‘글로컬백학학사’ 개관

조선대학교는 “최근 24년이 경과한 노후 기숙사를 전면 리모델링하고 ‘글로컬백학학사’로 명칭을 변경,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조선대는 사생실 중심의 실내 정비와 최신 가구 도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을 조성했다. 수용 규모는 1천116명이다.

2026년도에는 ▲개별 샤워실 전환 ▲취사 시설 확충 ▲글로벌 교류 라운지 조성 등 단계별 고도화를 추진해 유학생을 위한 ‘통합 지원 인프라’를 완성할 계획이다.

김춘성 총장은 “글로컬백학학사는 우리 대학이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5천명 양성’을 위한 소중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단계적인 주거 환경 개선과 정주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선옥 기자

드림투데이 신임 사장 오성수씨 선임

일간지 드림투데이 신임 사장에 오성수(60·사진) 광남일보 전무이사가 선임됐다.

드림투데이는 최근 ㈜드림미디어 이사회를 열어 오성수 광남일보 전무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곡성 출신인 오 신임 사장은 광주 금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 대학원에서 도시지역개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남매일을 거쳐 광주매일신문에서 논설위원, 편집국장, 상무이사 등을 지냈다. /최명진 기자

김성중 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장 취임

김성중(사진) 제20대 (사)광주시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이 지난달 27일 취임했다.

이날 광주시시각장애인복지관 4층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박영숙 광주시 장애인복지과장, 김영순 광주시장애인총연합회 이사장,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취임식은 신임 연합회장 취임사, 유관기관 축사, 축하공연, 슬로건 피켓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김 신임 회장은 대한안마사협회 광주지부장, 광주서구장애인협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도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위원과 사회복지법인 금정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성중 신임 회장은 “우리 연합회가 새로운 미래를 열고 희망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형우 기자

백기상 제19대 광주서부교육장 취임

광주시서부교육지원청은 3일 청사 대강당에서 백기상(사진) 제19대 교육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백 신임 교육장은 18년 동안 교육전문직으로 활동하며 교육 현장과 행정을 두루 섭렵했다. 2024년부터 2년간은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을 역임하며 교육정책 전반을 총괄해 왔다.

또한 성덕고 교장과 광주제일고 교장을 지내며 학생 중심의 학교 운영과 소통 기반의 교육 문화 조성에 주력해 왔다.

백 교육장은 취임과 동시에 ‘광주기본교육’의 가치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백기상 교육장은 “광주기본교육의 철학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학생의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서부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가족과 늘 소통하며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노진석 광주사랑의열매 사무처장 취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광주 사랑의열매)는 3일 “노진석(사진) 신임 사무처장이 최근 취임했다”고 밝혔다.

강남대학교 사회사업학과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한 신임 노 사무처장은 2003년 서울 사랑의열매에 입사했다. 이후 사랑의열매 중앙회를 거쳐 강원 사랑의열매에서 모금·배분·경영 사업을 총괄해 왔다.

노진석 사무처장은 “연대와 나눔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광주의 현장에서 함께하게 돼 뜻깊다”며 “시민들의 따뜻한 참여가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건강한 나눔의 가치를 세워가겠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부음

▲김영일씨 별세, 김제환(광주 북구청 홍보실장)씨 부친상=발인 4일(수) 오전 8시30분 광주 구호전장례식장 401호(062-960-4444).

▲최윤범(전 해태 타이거즈 단장)씨 별세=발인 4일(수) 오전 8시30분 광주 서구 매월동 VIP장례타운 VIP 501호(062-521-4444).